



SARANG

시론 02

새만금의 새로운 기회: 플로팅 첨단산업단지

종합 03

전국 건축사 쉼기대회, 한목소리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6년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일원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북 남원시, '남원도자전시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광주 지역 뉴스 06-07

2026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제주건축사바둑동호회 친선교류전 열려
호남대학교 박종현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

전남 지역 뉴스 08-09

무안지역건축사회, 타이페이 건축문화 기행 실시
전라남도건축사회 AI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
전라남도건축사회, 강진군·영광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건축사 인터뷰 10

옛 전남도청 본관 복원 프로젝트 사업

설계공모 11

전남대학교 지역개방형 문화체육 콤플렉스 증축사업 설계공모

독자광장/이·취임사 12

책 소개 _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
제8대 허만수 편집인 이임사
제9대 임현정 편집인 취임사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5월호(19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새만금의 새로운 기회: 플로팅 첨단산업단지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2026년 2월 말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수도권을 벗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하여 성공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구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와 기업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지만, 플로팅(floating, 부유식) 건축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하나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만금의 물리적·환경적 특성

새만금 사업 지역은 상당 부분(409km² 중 119km²[29%])이 호소이고 방조제로 둘러싸여 파도가 거의 없어서 정온(靜穩) 환경이 확보되어,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플로팅 시설 건립이 가능한 천혜의 대규모 수공간이다.

새만금 사업에서 매립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투입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중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방안으로 건물물 물 위에 띄우는 플로팅 기술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 지역에 풍부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RE100 (Renewable Energy 100%)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혁신적 디자인의 플로팅 건축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시그니처(signature)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의 매립 진척률은 약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추가 매립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날 국제적인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새만금 호수에 플로팅 건축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수공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추후 추가로 유치될 연관 산업이나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한정된 육상 공간에 더하여 수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로팅 건축의 사례

플로팅 건축은 수면 위에 떠 있는 구조체(함체) 상부에 건물물 짓는 건축 방식으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주거, 호텔, 레스토랑, 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의 플로팅 건축물이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몰디브와 같이 플로팅 도시로까지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점차 실현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에도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플로팅 건축이 있다. 한강에 떠 있으며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세빛섬이다. 홍수 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등의 악조건을 충분히 견뎌내면서 이 건물은 15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플로팅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NEOM) 프로젝트 가운데 홍해 연안의 해상 플로팅 산업단지인 옥사곤(OXAGON) 역시 해상 및 연안 공간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로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 플로팅 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할 때 이를 비교하여 참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플로팅 건축의 장점 및 과제

첨단산업단지에 플로팅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플로팅 건축은 수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상의 부지 매입이나 대규모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부지 조성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계류 시스템 및 인프라 비용을 포함한 종합

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시설은 지진 같은 재난에 안전해야 하는데, 플로팅 건축은 지면과 사이에 물이 있어서 자연적인 면진 구조가 되고, 계류 시스템에 의해서 지진의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육상의 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플로팅 건축은 육상의 건축에 비하여 수열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에너지(전체 사용 에너지의 약 40%)가 필요하므로, 새만금의 수 공간은 단순한 경관자원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대규모 발전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수자원을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원리이다.

물론 플로팅 건축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류 시스템, 인프라의 연결, 유지관리, 진동에 대한 대책, 생태계 영향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실행 방안

플로팅 첨단산업단지 건축인허가 문제는 건축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즉 건축법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및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만금사업법 제49조 및 건축법 제8장, 건축법시행령 제8장을 적용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공유수면 사용이나 산업입지 등 관련 법/절차의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첨단산업단지와 연관 기업, 추가적인 산업단지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 서해안 고속철도 등의 조기 준공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에 플로팅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각종 기반 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산업단지와 연결 도로를 계획하고, 플로팅 건축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을 연결하기 위한 공동구를 호수 변을 따라서 미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건축 디자인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 및 관련 건설·조선·엔지니어링 회사가 협력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고품질의 플로팅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플로팅 건축은 모듈화를 통한 조립식으로 시공되므로 대부분 구조물을 육상이나 도크(dock)에서 제작한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공의 정밀도 역시 높아진다.

건축물 자체도 환경친화, 제로에너지, 탄소 제로 등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중이 가벼워서 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구조 및 목재 마감을 도입한 플로팅 첨단산업단지의 이미지를 ChatGPT에 요구하여 생성해 본 것이다.



새만금은 넓은 수공간, 풍부한 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입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드문 지역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가 단순한 산업시설 유치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RE100-AI 데이터센터-수소경제를 결합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상 부지만이 아니라 수공간 활용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플로팅 건축은 매립 부담을 줄이고, 수열에너지와 다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관과 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다만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인허가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세계적인 플로팅 첨단산업단지의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효율 앞세우다 국민 안전 무너진다!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 한목소리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사진 = 정부세종청사 앞, 전국에서 모인 건축사들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및 17개 시·도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핵심 내용

- ▶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 허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 복수 건축물 동시 감리 허용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안 문제점

- ▶ 행정 효율 중심의 제도 개편으로 국민 안전 후순위 우려
- ▶ 복수 현장 동시 감리로 업무 집중도 저하 우려
- ▶ 감리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가능성

■ 향후 대응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수)로 예정된 의견 제출 마감일에 앞서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전국 건축사들의 뜻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 제기 예정
의견개진참여 :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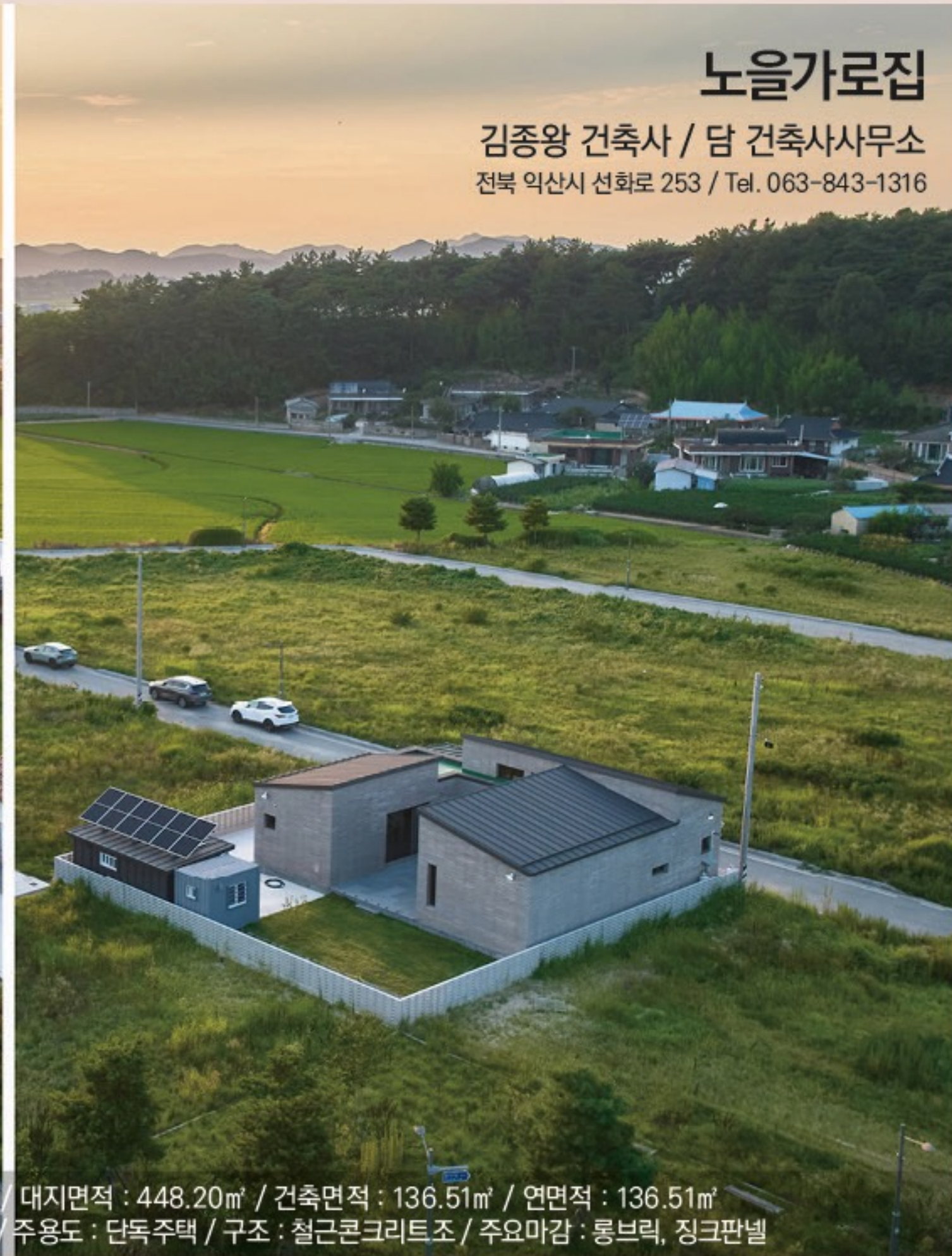
(사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진 = 전라남도건축사회)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노을가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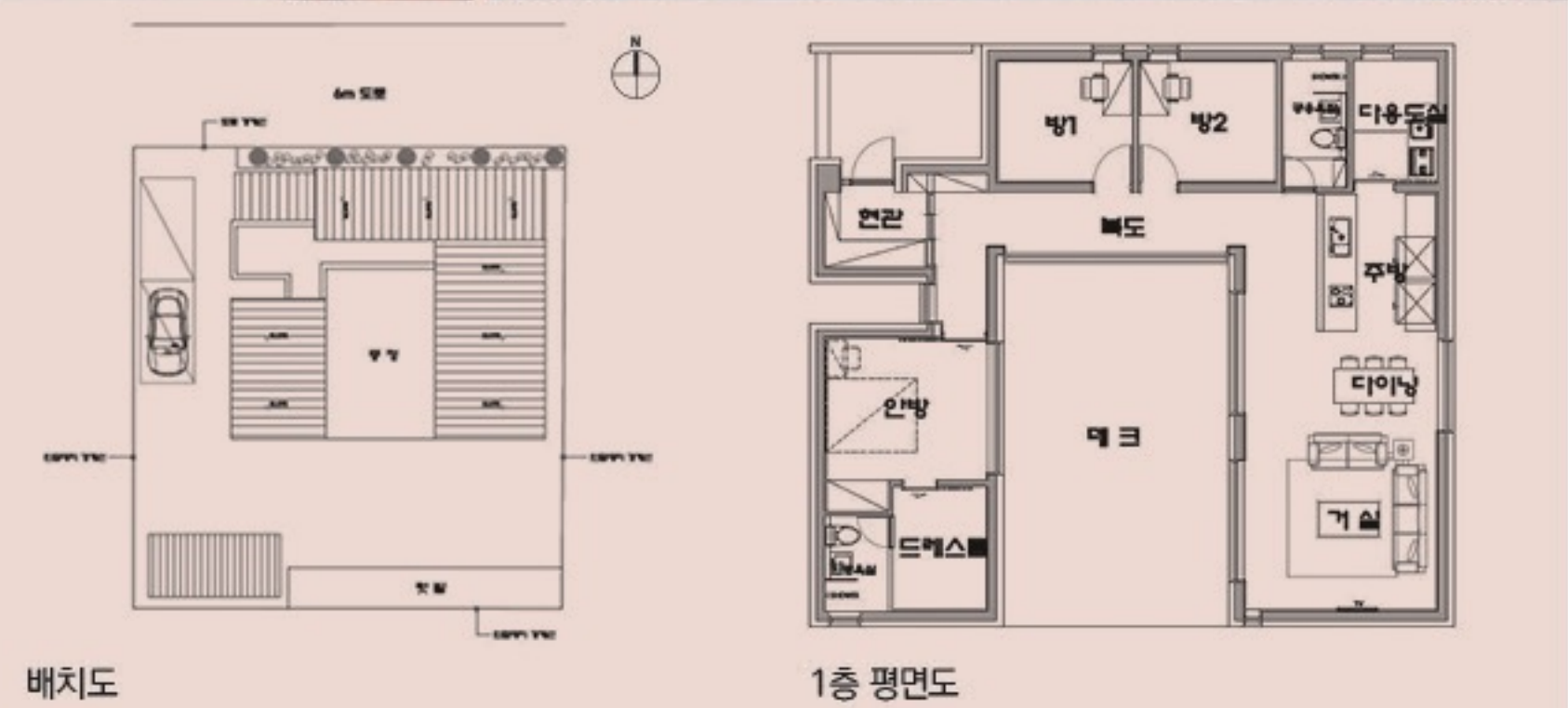
김종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전화로 253 / Tel. 063-843-1316

“버킷리스트” 누구나 그러하듯 이 프로젝트를 주문한 건축주에게도 도시를 벗어난 근교의 단독주택은 삶에서 꿈꿔왔던 일이었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고려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주문에 언뜻 밖에서는 표정을 볼 수 없는 불친절한 건물은 반대로 모든 시선은 오롯이 중정으로 열리고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며 가족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회색의 와이드벽돌로 마감된 외벽은 한낮에 빛과 저녁노을에 각각 다른 색을 띠며 주변 경관에 스며들어 언제였냐는 듯 무심하다. 그 무심한 벽에 해 질 녘 변산의 낙조가 입혀지고 가족의 하루는 그 안에서 더 아늑하길 바라본다.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434 / 대지면적 : 448.20㎡ / 건축면적 : 136.51㎡ / 연면적 : 136.51㎡
건폐율 : 30.45% / 용적률 : 30.45%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롱브릭, 징크판넬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6년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완주 모악산 축구장에서 건축인·가족 등 600여명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9일 완주군 모악산 축구장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와 전주시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공동 주최했다. 전북 14개 시·

군 건축사 및 관계자, 유관기관, 건축인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대규모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축구와 계주,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단체 경기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실무 현장에서 벗어나 도내 건축인들이 한뜻으로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으며, 이러한 화합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열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단합의 밑거름이 된 만큼, 앞으로도 건축인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일원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기준을 마련해...



(사진 =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은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 증가와 개발압력에 대응해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격포리 해수욕장 일원의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한편 쾌적한 경관 형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시설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밀도를 높이고 관광·상업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의 용도·배치·높이·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상업시설 밀도 강화에 따라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역 내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 '남원도자전시관'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이엔지 이길환 건축사...



(사진 = 남원군청 제공)

남원시는 전통 도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인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은 조선 초기 왕실 백자 공납지이자 일본 '사쓰마 도자'의 원류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전시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모는 전국 각지 건축사무소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총 16개 작품이 접

수되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작 1건과 입상작 4건이 선정되었다.

최종 당선작은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작품으로 향후 남원도자전시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당선작은 전통 도자문화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 구성과 상징성 있는 건축 계획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간 구성과 내·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개방형 구조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공간 경험을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남원시는 이번 설계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자문화 거점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설안전·품질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선진적인 건설문화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가 오는 5월 26일(화)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전북 지역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건설안전·품질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선진적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건설현장 점검 방식 및 중점 관리 사항, 안전사고 사례 분석, 건설현장 품질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SMART 건설안전장비 소개와 가상(VR) 안전체험 및 진단장비 시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사들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연중 2회에 걸쳐 전북 지역 내 건축현장 8개소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 건축 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여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원호 건축사, 장자도 일대 '전국 유명시인 초대 시화전' 성료

전국 유명 시인들이 대거 참여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여...



전북 군산시 새만금의 명소 장자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한 예술의 장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시화협회는 지난 17일까지 장자도 일대에서 '전국 유명시인 초대 시화전'을 개최하며 방문객들에게 문학적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시화전은 한국 문학의 쾌거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원호 건축사가 협회장을 맡아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유명 시인들이 대거 참여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전시된 시화들은 노벨상의 상징인 메달 이미지와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예술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추원호 건축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문학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화 예술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문학사의 역사적 순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9명 (2026. 5. 12. 기준)

•입회

- 이주영 건축사 / 여름숲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25, 2층

•변경(소재지)

- 송주창 건축사 / 하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50, 109호

•결혼

- 김은선 건축사 /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4월 18일(토)

- 김 용 건축사 / 김용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4월 25일(토)

- 이미양 건축사 / 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4월 25일(토)

- 이두필 건축사 / (주)디엔에스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5월 1일(금)

- 최창현 건축사 / 청운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5월 9일(토)

- 이규태 건축사 / 금성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5월 10일(일)

•부고

- 심생길 건축사 / 반도 건축사사무소 / 본인 별세 - 2026년 4월 14일(화)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 시부상 - 2026년 4월 20일(월)

세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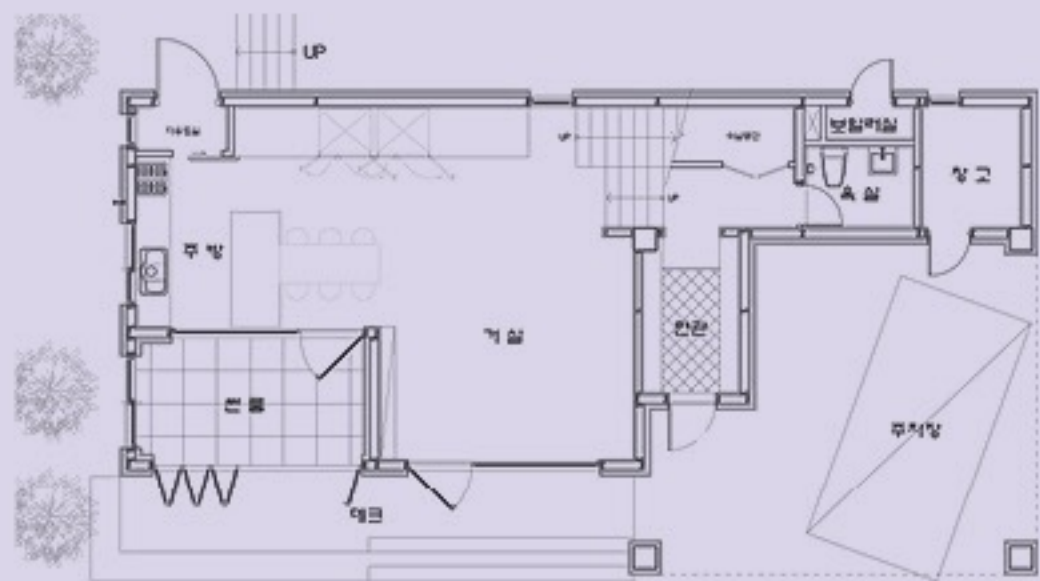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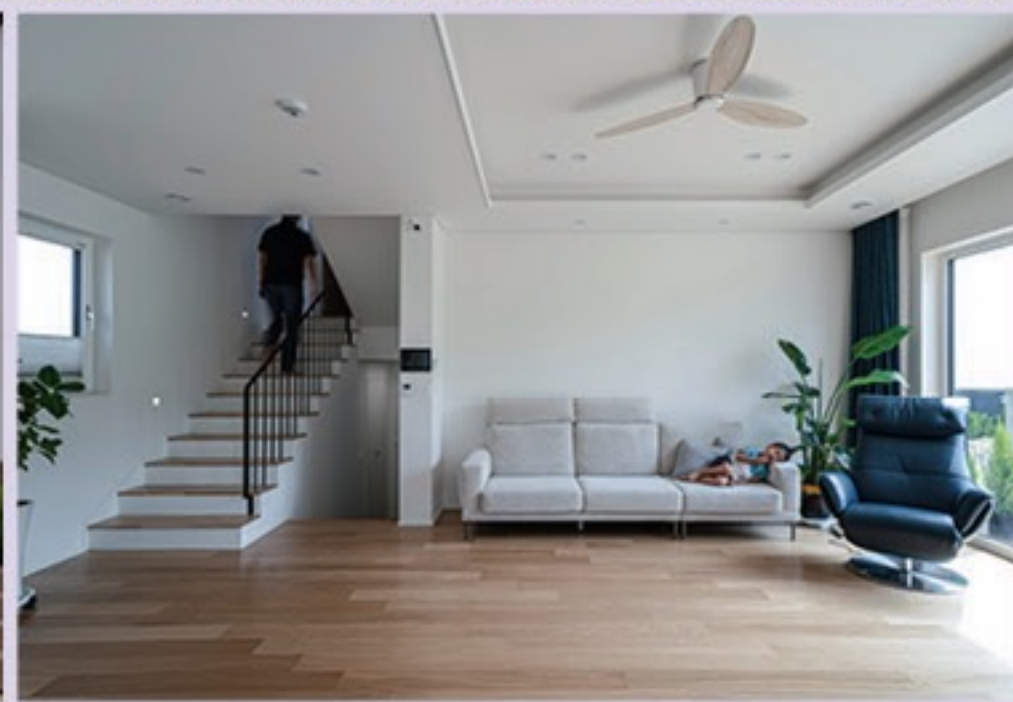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 Tel. 062-945-5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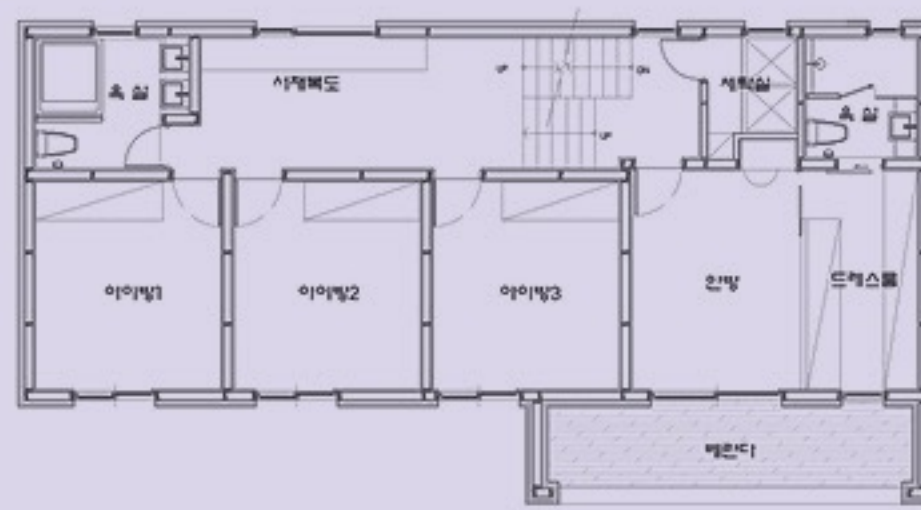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5-64번지 / 대지면적 : 297.50㎡ / 건축면적 : 119.52㎡ / 연면적 : 170.38㎡
건폐율 : 40.17% / 용적률 : 57.27%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목구조

세현담은 세 아이들의 이름에 공통으로 현자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붙은 이름이었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선물하기를 원했다. 건축주가 원하는 집에 대한 요구사항은 몇 가지 안되었지만 명확했다. 지붕이 있는 주차 공간, 주방과 외부로 연결하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다락과 아이 셋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욕실 공간 등을 요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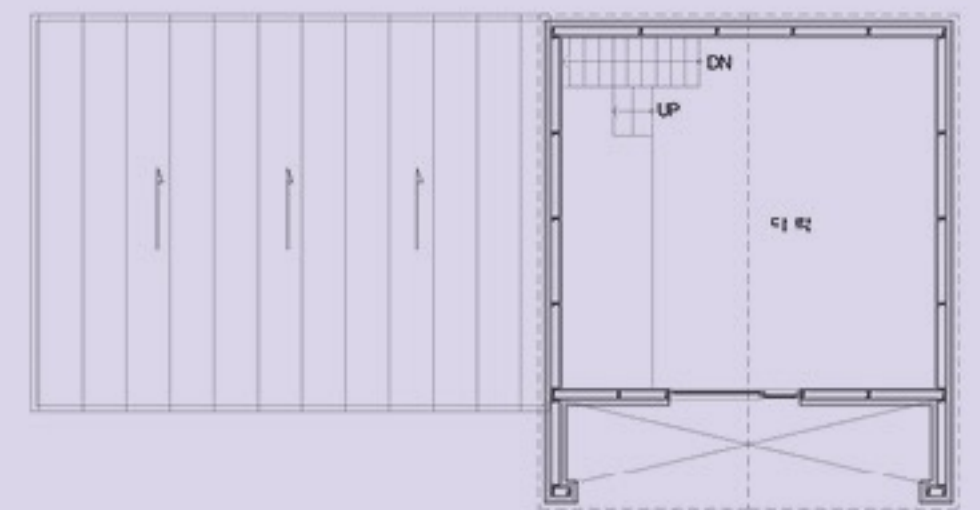
주차 공간이 집에서 제일 낮으면서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주차를 하고 현관으로 들어서면 계단 몇 개를 올라 거실로 이어진다. 거실과 주방은 병렬로 배치하였으며 주방과 마당 사이에 실내 공간이자 실외 공간인 썬룸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또 다시 반 층을 올라가면 부부를 위한 공간이 나온다. 안방에서 또 다시 반 층을 올라가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나온다. 아이들의 공간인 2층에서 반 층을 내려가면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이 나오고 반 층을 올라가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다락이 나온다. 이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다락은 멀리 공간으로 활용 계획하여, 현재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지만 아이들이 크면 부부의 서재가 될 예정으로 가장 높은 창을 가지고 있어서 집 앞의 공원이 한눈에 들어와서 건축주 부부가 욕심내고 있는 공간이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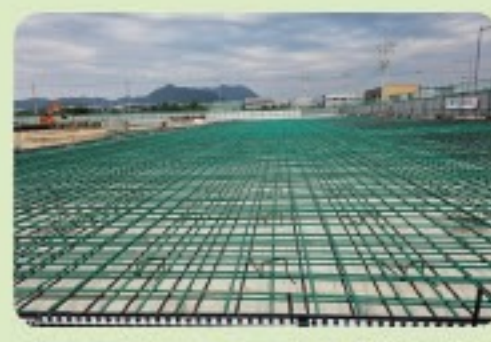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2026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골프동호회원 및 특별회원 70명 참석... 우승은 광주 김삼현 건축사



2026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4일 어등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임경희 골프동호회장을 포함해 골프동호회원, 특별회원, 광주건축사회 회원 등 총 7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필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의 달 5월에 회장배골프대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잠시 일상에 벗어나 회원들과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념촬영과 시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경기는 총 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영예의 최종 우승은 길 건축사사무소의 김삼현 건축사가 차지했다. 경기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우승자 시상 외에도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제주건축사바둑동호회 친선교류전 열려

양 시도 바둑동호회 회원 20명이 참가해 친선 교류 확대...



광주건축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바둑동호회가 지난 5월 1일 광주바둑협회에서 친선 교류전을 개최하며 양 지역 건축사 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번 교류전에는 양 시도 바둑동호회 회원 20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 대

국을 펼쳤다. 대국을 마친 회원들은 양측 건축사회 간의 친선 교류 확대 방안과 향후 바둑동호회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광주·제주건축사바둑동호회 교류전은 지난 2015년 시작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행사다. 이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두 지역 건축사회의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바둑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매개로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건축사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호남대학교 박종현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연계형 학술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



(사진 = 호남대 박종현 교수)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종현 교수가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약 7,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 도시설계 분야의 연구와 정책을 현장과 연계하며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 광주전남지회는 지역 도시공간 현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MA(Master Architect)를 역임한 박종현 교수는 그동안 쌓아온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연계형 학술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 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가진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의 복합적 특성을 강조하며, 광주전남지회를 지역 도시공간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임을 계기로 호남대 건축학부의 대외 협력과 지역 공간 연구 활동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건축사회, 4월 건축사 실무교육 성료

전문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24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4월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권세홍 세무사(권세무회계)가 강사로 나서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축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세무 법규와 절세 전략 등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두 번째 교육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재룡 과장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과 철저한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무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실무에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하며 전문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6월 25일(목)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강형주 교수의 '미래의 건축' 강의와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의 '건축과 공간심리'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2시
- 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내용 : 광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방향 및 내용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1명 (2026. 5. 12. 기준)

- 전입
 - 엄유신 건축사 / (주)한테마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97, 3층
- 전출
 - 주 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건(주) → 전남
- 변경(소재지)
 - 안 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87, 2층 202호
 - 김하나 건축사 / 비바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설죽로471번길 32, 1층
 - 김재희 건축사 / 센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양일로 190, 본관 203호
- 결혼
 - 문출성 건축사 / 영창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5월 9일(토)
 - 윤형근 건축사 /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5월 10일(일)
 - 강석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명 / 아들 결혼 - 2026년 5월 30일(토)
 - 나예진 건축사 / DNA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6년 5월 17일(일)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에스펠리어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1-5 / Tel. 061-742-4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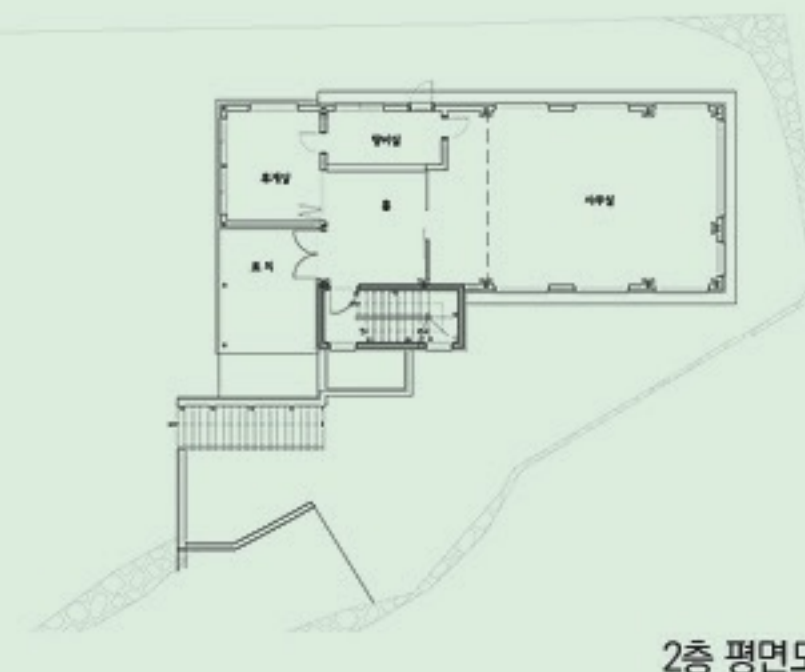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농업법인 에스펠리어가 화초 재배와 판매, 그리고 재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지는 시내에서 벗어난 낮은 산 능선에 위치해 자동차로만 접근 가능하며, 기존의 3단 경사지 지형을 성토와 석축으로 보완해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배치를 계획하였다.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사무실과 화장실, 2층은 카페로 사용되나 교육 시 교육공간으로 전환된다. 박공 지붕 구조로 인해 다락이 마련되어 2층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 계단을 통해 각 층과 접근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외부 마감은 백색 스타코플렉스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붕은 알루미늄 징크로 마감해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곳은 오랜 꿈을 담아낸 공간으로,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육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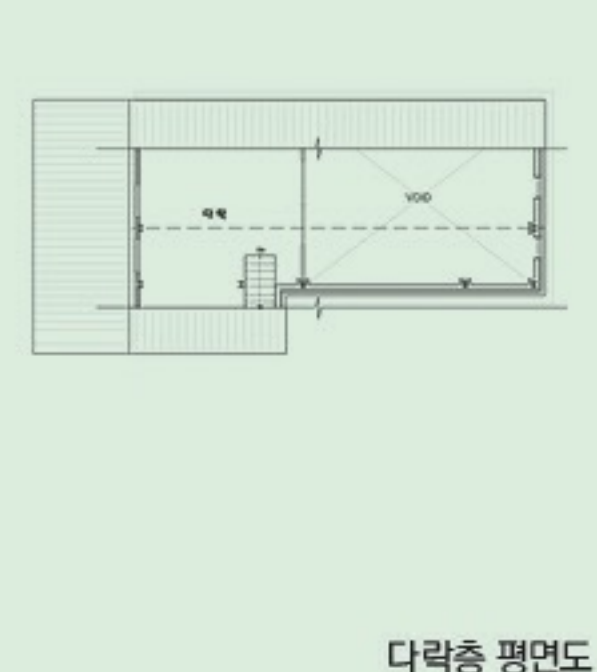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료리 517-1 번지 / 대지면적 : 2,080㎡ / 건축면적 : 138.48㎡ / 연면적 : 262.14㎡
건폐율 : 9.12% / 용적률 : 12.60%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회원알림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사례-1

설계, 입찰공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한 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주요 피해사례-2

학교나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여 명함을 발송한 후, 제3의 업체 물품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공기관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는 수법

대응 요령

1. 기관 대표전화 및 공문서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2. 발신자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진위 여부 확인
3. 의심스러운 링크(URL) 및 첨부파일 열람 금지
4. 금전 요구시(계좌이체 등) 즉시 대응하지 말고 기관에 재확인

무안지역건축사회, 타이페이 건축문화 기행 실시

해외 도시·건축 답사를 통해 건축적 시야 넓히고 회원 간 소통의 시간 가져...



무안지역건축사회(회장 정민선)는 2026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페이 및 인근 지역에서 건축문화 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기행은 회원들의 건축적 시야를 넓히고 회원 간 친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타이페이 101타워, 타이페이 공연예술센터, 예류 지질공원, 지우펀, 국립고궁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도시와 건축,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특히 오래된 도시 조직과 현대적 시설이 공존하는 타이페이의 모습을 통해 건축이 도시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지역건축사회는 이번 기행을 계기로 회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족한 AI위원회는 앞으로 회원들이 설계 및 감리 등 실무 전반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AI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회원들의 실무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



전라남도건축사회가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건축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AI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AI 기술을 건축 실무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발족한 AI위원회는 앞으로 회원들이 설계 및 감리 등 실무 전반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남 건축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회원 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AI위원회 발족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건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실무 중심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건축사회, 강진군·영광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설계 및 감리비 감면 혜택 등 제공할 예정...



(사진 = 강진군 업무협약식)



(사진 = 영광군 업무협약식)

전라남도건축사회가 강진군 및 영광군과 손잡고 재난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4월 1일과 28일, 강진군 및 영광군과 각각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설계 및 감리비 감면 혜택이 포함됐으며, 전문 건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신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 안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강진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강진 지역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4월 28일 오후 1시에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

한 주거 공간 확보라는 점에 공감하며,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와 행정적 지원을 결합해 복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주택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건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 내 재난 복구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시,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 예정 규제 완화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주시가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며 도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번 재정비는 규제 완화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변경 절차를 밟아왔으며, 최근 최종 변경안을 확정했다.

그간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는 구역 지정 당시 수립된 계획이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인구 구조 변화와 상권 활성화 등 현실적인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대호2지구는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월지구의 경우 층수 제한을 대폭 상향해 준주거용지는 6층, 상업용지는 9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용지별 건축물 허용 용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토지 분할과 합병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현대화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1명 (2026. 5. 12. 기준)

•입회

- 조경진 건축사 / 경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송림로18-5,1층
- 김광옥 건축사 / (주)우영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2-1, 2층

•변경(소재지)

- 류윤주 건축사 / 유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총로 141-7, 114동 302호
- 박계옥 건축사 / (주)세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29, 2층
- 이승근 건축사 / 그리다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울산1길 4-63, 1층

•결혼

- 문범준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6년 4월 4일(토)
- 김성태 건축사 / 신아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6년 5월 2일(토)
- 김상조 건축사 / (주)신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6년 5월 9일(토)

•부고

- 정일경 건축사 / 여백 건축사사무소(주) / 부친상 - 2026년 4월 7일(화)
- 김동찬 건축사 / 타워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4월 7일(화)
- 류 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담 / 부친상 - 2026년 4월 9일(금)
- 남효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 / 시부상 - 2026년 4월 15일(수)
- 변형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모친상 - 2026년 4월 21일(화)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옛 전남도청 본관 복원 프로젝트 사업 ISP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와의 만남



이주경 건축사(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오는 5월 정식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를 맡은 이주경 건축사(ISP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여와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의 배치가 핵심 과제”였다고 “복원된 공간이 ‘과거를 전시하는 곳’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주경 건축사를 통해 복원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판단보다 역사 당사자들인 시민의 목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복원 공간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복원된 공간이 ‘과거를 전시하는 곳’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기억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5·18 민주화운동의 참여와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의 배치가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도청의 본관 내부, 별관, 상무관 등 각 건물이 1980년 5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고 그에 맞도록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도청 본관 내 중앙계단 주변에 설치됐던 현대적 전시물을 전면 철거하고, 당시 집무공간과 이동 동선을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은 복원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치했습니다. 공간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도청 별관에 편의시설을 집약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단순한 전시시설을 넘어, 방문객 모두가 1980년 5월의 그 자리에 직접 서 있는 듯한 체험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언어로 말해지는 공간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런 건축이야말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가 목표로 한 지향점이었습니다.

Q. 옛 전남도청 본관 등 1980년 5월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진행 소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 5월, 뜨거웠던 역사의 기록을 복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연면적 약 9,067㎡ 규모로, ISP 건축사사무소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무게감을 지금도 잊기 어렵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장소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치열한 기억이 새겨진 공간입니다. 40여 년의 세월과 변형을 되돌려 건물 하나하나를 5·18 당시의 공간으로 복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외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서 살았고, 싸웠던 사람들의 숨결과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라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Q.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의 복원은 일반적인 건축 설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집중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집중하신 것은 철저한 고증작업이었습니다. 고증의 핵심자료로 삼은 것은 2007년 작성된 ‘보전건물 실측 기록 보고서’와 2009년의 ‘도청별관 및 기록화 용역보고서’였습니다. 이외에도 5·18 당시의 사진, 영상, 기록물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고증을 완료한 부분은 1980년 5월 18일 당시로 정확히 복원하고, 재료가 부재한 부분은 2007년 기준으로 복원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마감재 고증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용됐던 자재가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건축된 광주·전남 지역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건물들을 직접 조사해 참고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단열·방음·내진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원형의 외관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적 과제였습니다.

경찰국과 경찰국 민원실은 전시시설 설치를 위해 내부 보와 슬라브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외벽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골구조물이 남아 있어서 구조 안전상 존치하면서도 원형 복원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 내내 5·18 관련 단체와 광주·전남 시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설계자의 임의적인

Q. ISP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문화 생산주체로서의 소명’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견지하게 된 비전인지 궁금합니다.

건축은 작게는 사람의 삶을, 크게는 사회와 문화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건축사는 시대를 반영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옛 전남도청 복원 프로젝트야말로 그 비전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도면의 선, 자재 선택 등 과업의 하나하나가 5·18의 기억을 왜곡할 수도, 더 선명하게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배웠습니다. 더불어 건축 언어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건축문화 생산주체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확신한 계기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신념 덕분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견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책임감을 기꺼이 지겠다는 자세가 저희 사무소의 정체성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옛 전남도청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 나아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소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건축은 시대를 초월해 공감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소의 이름처럼, 공간과 장소의 융합(Integration of Space & Place)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건축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간별	월간
편집인	임현정	등록일자	2010-01-25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전담기자	김종문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남대학교 지역개방형 문화체육 콤플렉스 증축사업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학생·교직원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2029년 개통 예정인 광주광역시 지하철2호선 역사와 연계하여 지역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함.

이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스포츠센터, 체육관을 철거 후 개축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완성도 높은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 대학의 상징성과 예술성, 공간적 우수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지역 중심의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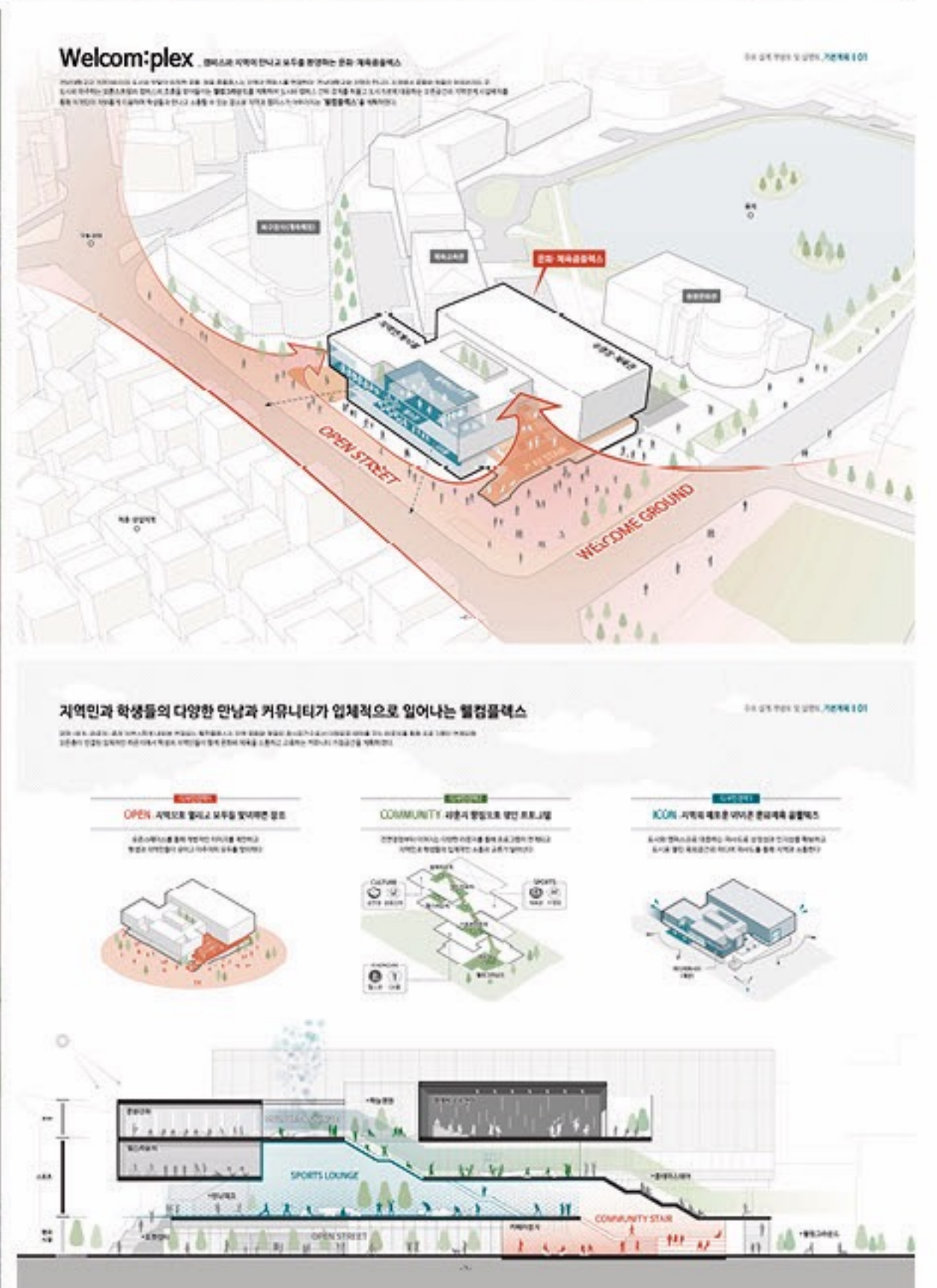
심사위원 : 이효원(전남대학교), 서유석(국립창원대학교), 이성근(계명대학교), 김정규(국립목포대학교), 신현보(한남대학교), 이상훈(충북대학교), 이장민(인제대학교)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대지면적 : 9,045.00㎡
- 연 면 적 : 10,849.8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 주요마감 : 세라믹판넬, 알루미늄타공판넬,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

하태완 / 북로망스 / 2025. 05. 21.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위로받고 또 상처받으며 하루를 버텨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거나 스스로를 다정하게 위로하는 데에는 서툴다.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감정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마음의 쉼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와 감정의 의미를 섬세한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전한다.



하태완 작가는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문체를 통해 삶 속의 외로움과 불안,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준다. 특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놓지 않는 당신의 흔들림은 의미 있다"라는 메시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로 다가왔다. 작가의 문장은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든 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낙원'이라는 표현이었다. 일반적으로 낙원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작가는 낙원을 거창한 공간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자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따뜻함으로 설명한다. 특히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위로와 진심 어린 말들이 결국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점이 크게 공감되었다. 평소에는 당연

하게 지나쳤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감성적인 문장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 역시 충분히 의미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 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특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때로는 쉬어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사람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하듯, 작가의 문장들도 독자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전에는 위로란 특별한 조언이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책은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배려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정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공간을 설계할 때에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는 지친 하루 끝에서 조용히 펼쳐보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또한 스스로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 결국 낙원이란 멀리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전해준다.

제8대 편집인 이임사 / 임기 : 2024. 4. 11. ~ 2026. 4. 10.



허만수 건축사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축문화 사랑」 편집위원장으로 함께해 왔던 시간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실무 속에서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호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지역 건축문화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시간들이 있었기에 「건축문화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축문화 사랑」을 읽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건축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회의 이야기와 지역의 건축문화를 함께 공감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작은 기록들이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건축문화 사랑」은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지역 건축의 생각과 사람, 그리고 시간을 담아내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 사랑」이 지역 건축문화의 소중한 기록으로 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9대 편집인 취임사 / 임기 : 2026. 4. 11. ~



임현정 건축사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19년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광주·전남·전북 편집위원님들과 전주에서 함께했던 합동회의가 떠오릅니다. 지역 건축의 소통과 방향을 함께 나누며,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해온 역할과 건축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고자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면을 지켜온 발행인과 편집위원, 담당기자님의 노력 그리고 지역 건축을 함께 고민해온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제 편집인이라는 소임을 맡아 그동안 쌓아온 흐름을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과 서로 다른 시선과 경험이 이 지면 안에 자연스럽게 담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풍경과 삶을 품은 건축물들이 단순한 소식으로 지나가지 않고 깊이 있게 읽히고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담아내겠습니다.

편집위원 여러분의 손길과 지면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도 의미 있는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